

제목 :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4년 전망

◆ 본 자료는 2003년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2004년의 노동시장 지표를 전망한 내용임.

- 2003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2004년에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2004년 하반기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.
- 2003년 실업률은 3.4%로 전년도보다 0.3%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, 2004년에는 금년도보다 0.2% 포인트 감소한 3.2%로 전망됨.
- 취업자는 2003년에 0.2%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, 2004년에는 2.1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에 전년도보다 상당히 하락한 61.3%로 예상되며, 2004년에는 금년도의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였거나 퇴장하였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61.9%를 기록할 전망

최근의 노동시장 동향과 2004년 전망

I. 2003년 노동시장 동향

◆ 지속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지표 악화

- 2003년 GDP성장률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음
 - 2003년 중 지속된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2003년 GDP성장률은 2.8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 -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.
 - 민간소비를 반영하는 도·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도 1/4분기 1.5%, 2/4분기 -1.7%, 3/4분기 -2.6%로 나타나 부진이 심화됨.
 - 민간소비와 더불어 투자도 침체되어 설비투자추계 지수 증가율은 1/4분기 -3.4%, 2/4분기 -3.7%, 3/4분기 -7.0%의 상당히 저조한 수치를 기록
 - 반면 수출은 1/4분기 20.7%, 2/4분기 14.4%, 3/4분기 16.3%의 호조를 나타내, 수출이 내수의 부진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주도

-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3년 2/4분기 이후 노동시장 지표도 악화
 - 2003년 1/4분기 중 실업률은 3.6%로 전년동기의 3.7%보다 낮게 나타났으며, 실업자수도 전년동기의 829천명보다 23천명 감소한 806천명을 기록하여 1/4분기 중 노동시장 지표는 전년동기보다 개선되었음.
 - 그러나 2/4분기 이후 실물경제 침체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2/4분기 및 3/4분기 실업률은 모두 3.3%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보다 0.3~0.5% 포인트 증가
 - 실업자수 증가율도 2/4분기와 3/4분기에는 각각 9.0%, 16.0%로 급증하여, 2003년 연간으로 실업자수는 전년도 708천명보다 62천명 증가한 770천명으로 전망됨.

◆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감소

○ 경기침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대폭 증가

- 200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1/4분기 60.3%, 2/4분기 61.8%, 3/4분기 61.6%를 기록하였으며, 연간으로는 61.3%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도의 61.9%보다 0.6%포인트 낮은 수치임.
- 2003년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의 원인은 15세이상인구(생산가능인구)는 1.0%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0.1%(전망치)에 그친 것에 기인
- 이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낮은 원인은 금년도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였거나 퇴장한 비경제활동인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(2003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도에 비하여 2.5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)

○ 취업자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

- 2003년 취업자수 증가율은 1/4분기 0.6%, 2/4분기 -0.5%, 3/4분기 -0.5%를 기록하였으며, 연간으로는 -0.2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이에 따라 2003년 취업자수는 전년의 22,169천명보다 37천명 감소한 22,132천명으로 전망되며, 이와 같은 취업자수의 감소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로 1998년 취업자 증가율이 -6.0%를 기록한 이후 처음임.
- 2003년의 취업자수 감소는 상대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분의 침체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.

<표 1> 2001년 이후 노동시장 주요지표

(단위: 천명, %)

	2001	2002	2003p			
		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
생산가능인구	36,579 (1.1)	36,963 (1.0)	37,337 (1.0)	37,193 (1.0)	37,297 (1.0)	37,391 (1.0)
경제활동인구	22,417 (1.6)	22,877 (2.1)	22,903 (0.1)	22,439 (0.4)	23,055 (-0.2)	23,050 (-0.1)
경제활동참가율	61.3	61.9	61.3	60.3	61.8	61.6
취업자	21,572 (2.0)	22,169 (2.8)	22,132 (-0.2)	21,633 (0.6)	22,303 (-0.5)	22,295 (-0.5)
실업자	845	708	770	806	751	756
실업률	3.8	3.1	3.4	3.6	3.3	3.3
비경제활동인구	14,162 (0.3)	14,086 (-0.5)	14,435 (2.5)	14,755 (1.9)	14,243 (3.2)	14,341 (2.8)

주: p는 전망치, ()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.

자료: 통계청, 『경제활동인구조사』.

II. 2004년 노동시장 전망

◆ 2004년 5% 초반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.

○ 2004년에는 주요 수출국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또한 극심하게 위축되었던 소비 및 투자 등 내수도 2003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— 이에 따라 2004년 경제성장률은 5%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짐.

◆ 2004년 노동시장은 2003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

- 2003년의 노동시장은 부진은 2004년 초반까지 이어질 것
 - 노동수요는 실물경제의 파생수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, 실물경제의 변화는 일정기간 경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침.
 - 최근에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전됨에 따라 실물경제와 노동시장 간의 시차가 점차 단축되고 있는데, 대체로 1분기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물경제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.
 - 따라서 2004년도 경기회복의 효과가 노동시장에는 2/4분기 이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- 2004년 실업률은 3.2%, 취업자 증가율은 2.1%로 전망
 - 2004년도에 전년도의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내수가 침체국면에서 반전된다면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5.0%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.
 - 2004년 경제성장률을 5.0%로 가정한다면 실업률은 3.2%로서 금년도의 3.4%에 비해서는 약 0.2%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,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의 증대로 취업자는 전년도의 감소에서 2.1%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.
 - 이와 같이 2004년도의 취업자 증가가 실업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이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인함.
 -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경기변동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(부가노동자 효과 <= 실망노동자 효과).

<표 2> 2004년 주요 노동시장 지표 전망

(단위 : 천명, %)

	2004 p
GDP 증가율	5.0
생산가능인구	37,692 (0.9)
경제활동인구	23,340 (1.9)
경제활동참가율	61.9
취업자	22,600 (2.1)
실업자	740
실업률	3.2
비경제활동인구	14,352 (-0.6)

주 : p는 전망치, ()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.